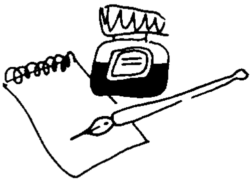
편집후기



편집후기를 쓰려고하면 유독 버리는 종이가 많아진다. 어떻게 써야하는지 감이 잘 안잡혀서일 것이다.

고생한 얘기를 하려면 웬지 우습고 또 사실 고생스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려니와 책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자니 많기도 할 뿐더러 글로 옮기는 게 김빠지는 것 같기도 해서이다.

여차저차한 이유로 결국 남는 것은 다행스러움이다. 좋은 원고 주신 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럽고 만드시는 분들의 건강하심도 또한 다행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무사히 책이 나와 다행스럽고.

이제 흐트러지기 쉬운 여름에 우리네 사는 생활 속에 혹시 잘못 꿰어진 단추나 풀려진 실밥처럼 우리의 손길과 주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지 살필 여유가 생겨 무엇보다 좋다.〈卿〉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과정을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읽히고 싶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재와 보험」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진행한 그간의 작업을 되돌아보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에 분명 낭패스러움을 느낀다.

편집내용의 개편과인쇄방식의 개선 등 「방재와 보험」을 새모습으로 단장하다보니 발간일까지 늦어진 점에 대해 독자제현 및 집필진여러분의 넓은 아량 있으시길 바란다. 그리고 다가올 장마와 더위를 잘 넘기면서 부디 건강한 여름이 될 것을 기원한다. 〈建〉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 「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읍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내용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화재현장 목격담
○시, 수필, 수기, 꽁트 등 문예작품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우편번호 150-010) 본 협회 홍보부「방재와 보험」담당자 앞
문의전화 : 782-8156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가 지급됩니다.

防災와保險 1988/ 여름호
〈통권 제38호〉 계간 / 비매품

등록 / 마- 827호(1973년 10월 11일)
발행 / 1988년 7월 1일
인쇄 / 1988년 6월 25일
발행겸 편집인 / 이상규
인쇄인 / 성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창미문화사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 4
편집실 / 직통 782 - 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본지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당 협회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